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제목 :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성경: 호세아 6장 1-7절

Tag:

1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2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3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4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5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6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7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사람들이 원하는 것의 차이가 드러나 있다. 이 둘 사이의 차이를 파악하는 것이 핵심.

1-3절까지는 사람들의 신앙고백

4-7절까지는 하나님의 탄식

1-3절까지에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짐작하게 한다.

4-7절까지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짐작하게 한다.

두 문단 모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는 ‘하나님을 아는 것’(3,6절)이다.

1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 하나님께서로 돌아가자. 신앙생활의 경험이 많은 자들의 외침으로 시작함. 오래도록 하나님을 섬기면서 익히게 된 경험담 같다.
-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낫다.
- 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기(병들게 하셨기/가난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 우리가 이처럼 불행을 겪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내리셨기 때문이다.
- 왜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한다. 그러니 빨리 성전으로 가자.
-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로 낮게 하신다.
-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실 것이다. (신앙고백)

2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
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 이틀이나 늦어도 삼일정도 지나면 우리가 병에서 낮게 될 것이다.
-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을 한다. 그래서 빨리 유혹에 넘어 오도록.
-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한다.

3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
심은 새벽 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
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 그러므로 우리가 잘 알아야 한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한다. 내 경험에 의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하면 바로 복을 주신다.
- 내가 이해하기 쉽도록 잘 알려 줄테니,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내 말을 잘 들어, 우리는 주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잘 알고 있어야 해.
- 틀림없이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는 분이야. 어김이 없어. 새벽이 지나면 동이 트는 것처럼 어김이 없어. 비와 같이 늦은

비와 같이 틀림없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의 핵심은 곧 복. 하나님을 알려는 것의 목적도 복. 복 받는데 걸림돌은? 죄악. 이것을 어떻게 털어 버리지? 제물. 기가 막힌 지식.

-어떻게 죄책감을 털어버리는 지, 어떻게 문제의 해결을 보게 되는 지 잘 아는 사람의 신앙고백이며, 가르침.

그러나 4절부터 이제 하나님의 진심이 드러난다.

4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라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라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에브라임은 북쪽 이스라엘, 유다는 남쪽 다윗의 왕국.

-4절 말씀은 하나님의 안타까움으로 시작한다. 하나님의 오토케.

-이러면 안되는데, 너희 인애가 유통기한이 너무 짧다.

-인애가 없지는 않지만, 금방 사라진다. 아침 구름, 아침 이슬같다.

-아침 구름; 새가 뜨면서 생기는 아침 구름. 해가 뜨면 사라지는.

-아침 구름 때문에 생기는 이슬 이 또한 해가 조금 더 뜨면 사라지는.

-몇 시간짜리 인애.

-예배 드리는 순간에는 하나님을 사랑함. 기도 간절함. 찬양 감동적임. 그런데 예배당을 떠나면서 모두 잊어버림.

-하, 이러면 안되는데...

- 무엇이 가장 핵심적인 문제인가? '사랑결핍' 이것은 치명적인 악.

-인간은 짐승이 아니다. 특히 죄인에게 사랑결핍증은 결코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질병이고 더 나은 삶으로의 개선과 도약의 싹이 이미 꺾여버린 상황.

5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이제 하나님편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충격파.

- 심장 박동이 멈추어져 있어 최후의 수단을 사용할 수 밖에 없다.
- 제세동기로(AED) 심장에 충격을 주어 심장이 정신 차리게 해야 한다.
- 사람이 죽어갈 때 환부에 충격을 주면 죽어가는 세포를 살리기 위해서 자연치유력이 높아진다.
- 사람이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시는 제세동기인 셈.

6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사람과 하나님의 차이가 있다.

아는 것에 대한 3가지 종류

1. 학문적인 앎. (책으로)
 2. 경험으로 앎. 관행으로 앎. 어떻게 해야 내게 유익한지 아는 것. 종교적인 앎. (하나님은 항상 그래,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셔) 습관적으로 항상 그렇게 하셨어. 자신과의 인격적인 관계로서의 앎은 아님.
 3. 사랑하며 앎. 진정한 앎.
 - 찢으셨으나, 낮게 하시는 하나님.
 - 치셨으나, 만드시 비를 주셔서 풍요롭게 하시는 하나님.
 - 그러니 번제를 드리고 죄책감은 털어버리자구.
3. 하나님이 원하시는 앎은 인격적인 앎. 인격적인 앎의 핵심이며 인격적인 앎의 증거는 변함없는 인애.

이스라엘 민족의 앎이 두 번째인 증거:

번제나 제사;제사행위. 구약의 번제사는 다른 제사와 달리 하는 일이 많았다. 제사 행위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형성인데, 사실은 하나님은 뒷전이고, 제사 행위 그 자체에 몰두하는 현상을 경계

하고 있다.

제사로 하나님의 복을 끌어 당기는 것. 이것을 아는 것을 하나님 아는 것으로 착각함.

며칠전 교수아파트에서 좌회전을 준비하고 있는데, 좌회전 신호 직전에 앞 횡단보도가 신호등이 종료될 알리기 위해 깜박이고 있었고, 두 남녀가 건너는데, 남자는 깜박이는 것을 보고 뛰어갔다. 뛰면 1초도 걸리지 않는 횡단보도다. 그런데 여자는 그만 시간을 놓치고 빨간불이 켜지는 바람에 미처 건네지 못하고 남게 되었다. 남자는 그래도 빨리 건너오라는 눈치고, 사실 그래야 바로 대로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된다. 그 길은 뛰어가도 5초는 더 걸리는 넓은 도로다. 그것을 알고 있는지, 여자는 빨간불이라도 뛰어가려다가, 이제는 신호가 자동차가 좁은길로 들어오는 좌회전 하는 신호로 바뀌어 자동차들이 밀려오고 있어서 하마터면 차와 부딪칠 뻔 하였다. 기겁한 여인은 뒤로 도망하여 숨었다. 창피했던 것이다. 내 생각에는 남자가 재촉하지 말고 자기가 여자에게 달려갔어야 했다. 아니면 그냥 두 사람 모두 다음 신호를 기다려야 했다. 아내가 함께 보다가, ‘저 두 사람 사이는 이제 끝났어’ 한다. 결과적으로 여자가 대중 앞에서 망신을 당했으니, 오늘 데이트는 망쳤다는 뜻이다.

뛰가 중한가? 빨리 횡단보도 두 개를 지나서 식당에서 맛있는 밥을 먹는 것이 중한가(시간이 그렇게 급한가?), 아니면 남자가 여자를 보호하는 분위기에서 사이좋게 데이트를 즐기는 것이 중한가?

-밥보다 배려가 담긴 사랑이 더 중하다.

하나님께 대한 인격적 배려와 사랑을 원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무엇을 잊지 말아야 하는가? 쉬 잊어버리는 거짓 사랑이 아닌, 언약에 대한 믿음이 변함없는 사랑.

7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화려한 종교의식을 치르지만, 여전히 핵심을 놓치고 하나님의 진

노 앞에 노출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지 자신을 점검해야 함.

-언약을 잊지 않는 관계. 신뢰가 변함없는 사람. 믿음이 변함없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언약을 잊지 않는 성도가 되자. 아멘.

<찬양예배>

제목 : 말라기 성경공부 성경: 말라기 4장

Tag:

1 만군의 여호와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2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3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4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5 보라 여호와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6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말4:1-6)

<https://blog.daum.net/yongsim/4346>

초점	민족의 특권	민족의 타락		민족을 향한 약속		
관련구절						
구분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제사장들의 죄	백성들의 죄	기념책	오실 그리스도	오실 엘리아
주제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이 돌보심	하나님의 불만		하나님의 오심		
장소	예루살렘					
기간	BC 약 432-425년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이스라엘(에돔과의 비교)

1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2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
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
고

3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4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
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
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5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
서도 크시다 하리라(말1:1-5)

부패한 성직, 부패된 성물

6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이야 나 만군의 여호와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대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7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말1:6-7)

7 너희는 내 제단에 더러운 빵을 바치고 있다. 그러면서도 너희는 우리가 언제 제단을 더럽혔습니까? 하고 되묻는다. 너희는 나 주에게 아무렇게나 상을 차려 주어도 된다고 생각한다. (말1:7) <표준역>
'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야훼의 젓상쯤이야 아무려면 어떠냐고 하는구나. (말1:7) <공동역>

8 만군의 여호와와 이르노라 너희가 눈 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 보라 그가 너를 기뻐 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10 만군의 여호와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11 만군의 여호와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제사장들의 죄

1 너희 제사장들이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말2:1)

7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와 사자가 됨이거늘

8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9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말2:7-9)

9 그러므로 나도 너희가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게 하였다. 너희가 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율법을 편파적으로 적용한 탓이다. (말2:9) <표준역>

9 '너희가 나를 따르지 않고,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대로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나도 너희가 온 백성에게서 멸시와 천대를 받도록 하겠다.' (말2:9) <현대어>

9 그래서 나도 너희를 동족에게서 멸시와 천대를 받게 하였다. 나에게서 배운 길을 지키지 않았고 법을 다룰 때 인간 차별을 한 탓이다." (말2:9) <공동역>

백성들의 죄.

13 너희가 잘못된 일이 또 하나 있다. 주께서 너희 제물을 외면하시며 그것을 기꺼이 받지 않으신다고 너희가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주의 제단을 적셨다. (말2:13) <표준역>

14 그러면서 너희는 오히려, "무슨 까닭으로 이러십니까?" 하고 묻는다. 그 까닭은 내가 젊은 날에 만나서 결혼한 너의 아내를 배신하였기 때문이며, 주께서 이 일에 증인이시기 때문이다. 그 여자는 너의 동반자이며, 내가 성실하게 살겠다고 언약을 맺고 맞아들인 아내인데도, 내가 아내를 배신하였다. (말2:14) <표준역>

15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네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
지 말지니라

16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
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17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말
2:16-17)

엘리아(세례요한)에 대한 예언

1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
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말3:1)

2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말3:2)

5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삯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
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말3:5)

7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말3:7)

십일조를 도둑질하지 말라.

8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십일조와 봉헌물이라 (말3:8)

10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말 3:10)

11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말3:11)

12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3:12)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라

13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14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말3:13-14)

심판의 말씀(1:1절의 서론과 같은 결론)

2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

리라 (말4:2)

심판이 있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리라.

5 보라 여호와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말4:5)

6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말4:6)